

# Unifast III

## Unifast III 사용 후기



### 부산 남구 부광 치과

기존 템포러리 레진(ALIKE, LANG)제품을 사용했었는데...Shade, Working time, Setting time, handling 등을 비교했을 때 Unifast III 제품이 여러모로 다루기가 좋네요. 간호사들도 별부담없이 기존제품에서 이제품으로 사용가능했구요.

특히 Finishing, Polishing시 편합니다. 강도면에서도 좋은 것 같습니다.



### 부산 영도구 조은 부부 치과

우선 여러 가지 색조가 있어서 좋은 것 같네요. 저희 병원은 전치부의 경우 왁스조각 후 putty로 찍어서 건 타입의 레진으로 채워서 찍어내는 작업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이 Resin같은 경우에는 건타입보다 작업시간이 길어서 수축율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숙련만 된다면 Shade 표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직접 믹싱을 해서 작업하는 타입이라서 Incisal resin과 Dentin resin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여 투명감

투명감(Transparency)을 부여하려고 하니 혼수비를 잘못 맞추면 반점현상이나 incisal resin이 전체적으로 퍼져 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계량컵이 있기는 하나 보통 일반 심미치료 경우 계량컵을 사용 할 만큼 Resin이 많이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레진도 종류별로 건 타입이 있으면 Resin고유의 성질을 잘 활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건 타입 보다는 열이 많이 나는 성질이 있어 신경치료 되지 않은 치아에는 사용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 대전 이용배 치과

현재 Unifast 3 사용 중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냄새가 적고 경화시간이 빠르다는 점을 이용해서 Vital 치아나 전치부 쪽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진 자체에 투명감이 있어 색이나 모양이 잘 나옵니다.

다만 다른 제품에 비해 경화시간이 빨라서 사용법을 잘 주지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금세 굳어서 안 빠질 수도 있거든요.



### 경남 김해시 휴플러스 치과

이전에는 템포러리 크라운 제작시에는 주로 Tokuyama에서 나온 레진을 주로 사용했는데 (수련받을 때부터 이 재료를 사용해서 그런지 손에 익어서 주로 사용), 진료실에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 좀더 저렴하고 세팅시간이 빠른 레진으로 바꿀려고 유니패스트2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덴처를 제작한 환자들이 먼저 일부분이 파절되거나 치아가 탈락되어 내원하게 되면 치아의 경우 급한 대로 하드레진이나 템포레진을 사용하여 수리하고, 치은 부위는 Tokuso rebase를 이용하여 수리를 하였는데 색상이 잘 안 맞고 좀더 파절이 잘 일어나는 문제가 있어 할 수 없이 환자분에게 양해를 구해 pick-up인상을 채득하여 다음날 수리된 덴처를 delivery하는 경우가 많았다(기공실에서 작업). 그런데 마침 유니패스트3가 판매

되면서 치의신문을 통해 광고를 보니까 live pink 색상의 레진도 나와서 주문해서 사용해보니 기대 이상이었다. 먼저 구강내에서 바로 수리가 가능하고 식재를 해보니 rebase레진보다 훨씬 강도 및 경도가 뛰어나면서 색상도 잘 맞아서 chair-side에서 덴처의 파절된 부위 수리에는 아주 좋은 제품인 것 같다. 유니패스트3로 파절부를 먼저 수리하고 내면을 일부 삭제하여 rebase를 사용해 relining하면 당일 덴처수리가 가능하다. 치아 색상의 유니패스트3도 이전 제품보다 물성이 뛰어나서 주로 임플란트 임시치판이나 bite-raising case에서 주로 사용하는 데 가격만 좀더 다운된다면 모든 임시 보철물 제작에 사용하고 싶다.



### 전주 미소진 치과

그동안 임시치아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제품을 써보았는데 새로 나온 Unifast는 우수한 질과 작업에 있어서 좋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운 입자 가루가 Liquid와 잘 섞여 임시치아를 만들고 작업하는데 있어서 기포가 생기거나 가루가 뭉치는 등의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파우더와 Liquid를 골고루 배합하여 손에 묻어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게 될 때 임시치아를 만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손에 너무 많이 달라붙지도 않고 촉감도 좋아서 작업하기가 용이했습니다. 약간의 냄새는 있지만 환자가 거부감이 들 정도의 냄새는 아니기 때문에 작업이 쉬웠습니다. 환자의 구강 내에 압착한 후 교합하여 물었을 때 쉽게 변형되지 않아 빠른 작업속도에서 정확한 임시치아의 형태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임시치아를 깎는 과정에서도 Bur의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깎여 나가며 이때 발생하는 먼지나 가루들도 타사 제품에 비해 훨씬 적게 느껴졌습니다. 완성된 후의 임시치아의 Polishing 단계에서는 광택나는 정도도 좋을뿐더러 환자 뿐만 아니라 의료진도 만족합니다. Unifast III는 Single Crown 뿐만 아니라 브릿지, 전치부 임시치아 (심미적인 면)에서도 뛰어난 제품이어서 오래도록 애용하고 싶습니다. Unifast 화이팅!!

